

현대차에 밀린 카드사, 他 대형점 협상 “카드가 없네”

카드 노조 갑질 규탄 기자회견

카드수수료 인상 가이드라인 미비
‘차등수수료제’ 등 평등 체계 요구
금융당국 근본적 대책 마련 주문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13일 서울 종로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재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갑질 방지를 위한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자동차 등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게 제시한 수수료 조정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백척간두에 선 절박한 심정으로 금융공동투쟁본부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당국에 대한 분노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게 갑질하는 재벌가맹점에 대한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며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일이 예견됐을

에도 그동안 직무유기로 일관해 이런 사태를 야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많은 재벌가맹점들과의 협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에 의하면,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

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금노는 현대기아차가 이 같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에 대한 갑질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금노는 “현대기아차는 카드수수료를 소액 인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사와의 가맹점 해지를 통보했다”며 “법률에

는 대형가맹점의 갑질 방지를 명문화해 놓고,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처벌규정은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전금노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금노는 회견문을 통해 “정책적 대안으로 카드수수료 하한선(최저 가이드라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애당초 카드업계가 자율로 운영 중이었던 카드 수수료 상한선이 지난해 6월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 한 마디에 강제로 인하됐으나 그 하한선은 확립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금노는 “이번에는 카드 수수료 하한선을 금융위원회가 마련해야 하며,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는 낮추고 재벌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해 재벌가맹점과 카드사와의 불평등한 수수료체계를 평등하게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카드사는 지난 1월 말 현대기아차에 당초 카드 수수료율인 1.8% 초중반 대에서 0.1%포인트 이상 올린 1.9% 대 수용을 제시했고, 현대자동차는 자동

차 업황부진을 이유로 들며 각 카드사에 0.05%포인트를 인상한 1.89%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것을 각 카드사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카드는 지난 10일 현대차와 1.89% 안팎의 수수료율 협상을 타결했고, 지난 11일 BC카드도 현대차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신한·삼성·롯데카드가 현대기아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현대기아차는 신한카드와 협상을 타결한 후 나머지 카드사인 삼성·롯데카드와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다.

13일 현대기아차와 수수료율 협상을 완료한 신한카드 관계자는 “대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대차와 가맹점 수수료율 협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협상을 두고 끝까지 베팅된 주요 카드사들이 차례로 협상안을 수용함에 따라 앞으로 카드업계와 대형가맹점 사이의 수수료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NH농협은행 대학생 봉사단 ‘N돌핀 7기’ 발대식

금융교육, 농촌·농업 가치 홍보

NH농협은행은 13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금융교육과 농촌·농업의 가치 홍보에 앞장선 대학생 봉사단 ‘N돌핀 7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전국 17개팀 100명의 N돌핀 7기는 오는 11월까지 청소년들의 진로멘토링과 농촌지역·다문화가정·새터민 등에 대한 금융교육,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지역맞춤형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게 된다.

또 활동 우수자에게는 은행장명의 표창과 장학금, 입사특전(1차 서류전형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N돌핀은 NH농협은행의 이니셜 N과 역동적인 돌고래 돌



이대훈 NH농협은행장과 N돌핀 7기 대학생들이 N돌핀 깃발을 흔들고 있다.

핀의 합성어”라며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체험하고, 소통해 전국 방방곡곡에 행복을 실어 나르는 앤도르핀 역할을 하는 농협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1월 대출연체율 0.45%… 中企·가계 연체 ↑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 신규 연체 발생액 1조400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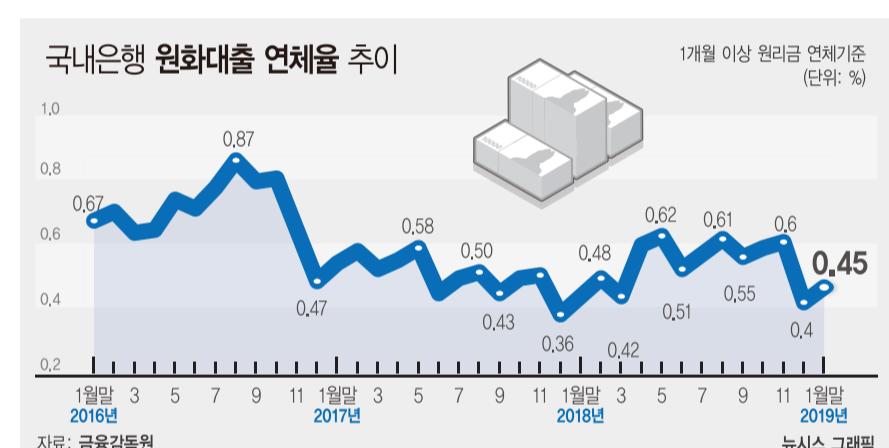
은행들의 대출연체율이 한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중소기업과 가계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폭이 커졌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5%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월과 비교해서도 0.03%포인트 높은 수치다.

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1조4000억 원으로 연체채권 정리규모 7000억원을 웃돌아 연체채권 잔액이 8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71%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57%로 전월 말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0.36%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8%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0%로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0.47%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년 말 연체채권을 대규모로 정리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대출연체율이 그간 개선추세를 보이다가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국민銀, 해외 항공기 금융펀드에 투자

1000만 달러씩 2건 투자

KB국민은행은 해외 항공기 금융펀드에 2000만달러(약 220억원)를 투자했다고 13일 밝혔다.

항공기 금융시장은 항공여객 및 화물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신디케이션, 채권발행, 보험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매년 약 1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KB국민은행은 해외 항공기 금융 전문 매니지먼트사인 노부스 캐피탈(Novus Aviation Capital)이 운용하는 항공기 금융펀드 2건(Tamweel Aviation Finance II, Cedar Aviation Finance)에 각각 1000만달러씩 투자한다. 해당 펀드는 각각 4억달러, 3억달러 등 총 7억달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와 보잉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운용사인 노부스 캐피탈은 현재까지 25년 이상 항공기 금융시장에서 펀드운용 및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 지난 2013년 에어버스가 참여한 펀드(Tamweel Aviation Finance)의 성공적인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펀드를 출시하게 됐다.

이번 투자에서도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평소 강조하던 ‘원펌(One-Firm) KB’가 구현됐다. KB국민은행은 펀드에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고, KB증권은 펀드의 국내판매를 담당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이 해외 대체투자 시장에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뉴욕, 런던, 도쿄 등 글로벌 투자금융(IB) 데스크(Desk) 확대를 통한 해외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특정금전신탁 외화 RP 상품 출시

최소 가입금액 1만 달러 이상

신한은행이 외화 신탁상품의 라인업을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외화(USD)로 투자하는 신탁상품인 ‘신한알파플러스 외화 특정금전신탁’에 1개월 만기 외화(USD) 환매조건부채권(RP)을 추가해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운용자산인 USD RP는 국제 신용평가 기준으로 ‘A0’ 등급 이상의 원화 및 외화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며,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 약정된 수익을 주고 다시 사는 조건이다.

개인과 법인 제한없이 국민인 거주

자연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최소 가입금액은 1만 달러 이상이다.

이 상품은 유동성 확보 및 결제대금으로 달러를 보유 중인 수출입업체를 비롯해 해외투자용으로 달러를 보유 중인 개인, 은행의 외화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법인 등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현재 3·6개월 만기 외화 기타파생결합자산(DLB) 및 외화 단기 채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달러 자산의 안정성과 고정금리를 원하는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전북은행

교육비 자동이체하면 月 5000원씩 캐시백

전북은행이 교육비를 JB신용카드로 자동 이체를 신청한 고객에게 1만5000원을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학교에 교육비 카드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전북은행에 신청 정보를 알려주면 카드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된다. 캐시백은 월 5000원씩 3개월 지급된다.

이밖에도 JB카드는 필수공과금에 대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에게도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벤트는 오는 6월까지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나유리 기자